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송파구 문정지역을 중심으로

김태두

송파구청 기획재정국장

bossk@seoul.go.kr

1. 서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내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세수입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또 한편 지역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그 지역의 생산 기반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량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자치단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자치단체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기업들은 기업입지, 판로개척,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지방자치가 문화적으로나 행정적,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 정부에 권력이 편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방 자치단체의 경제정책이 중앙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노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주민과 밀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노력과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성과에 비추어 구체적인 방안과 더 나아가서는 행정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역경제의 개념과 활성화 정책

지역경제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를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형성하고 있는 공간경제를 의미한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의 지역경제는 지방의 독자적 경제이며 지방고유의 작동원리와 구조를 갖추고 고유의 역사와 배경을 갖는 것으로 인식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기반확충과 생산성증대를 통해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지역의 기존산업을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여 육성하거나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유치하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가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은 지역고용 및 지역소득 증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3. 송파구의 지역경제 기본여건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송파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논하기 위해 송파구의 지역경제 기본여건을 분석하여 보았다. 첫째, 도시구조적인 측면에서 송파구는 서울 동남권의 관문으로 성남·하남·광주 등 인근 위성도시가 개발되면서 상업유통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었고, 지하철 39호선 신설, 광역도로개설 계획 등으로 시통팔달의 편리한 교통과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어 경제활동이 편리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 보유하고 있으며, 잠실지구아파트 재건축완료, 문정·장지지구 개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 지역이다. 둘째, 토지이용 측면에서 장기간 개발유보지로 남아 있던 문정·장지지구의 개발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위례신도시(송파신도시) 개발로 지역편중없이 전 지역의 고른 발전이 기대되고, 성동구치소의 법조단지 내 이전과 가락시장 및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잠실아파트 재건축, 제2롯데 건립 추진 등은 저층 구조의 토지 이용 현황을 고층 구조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가락시장과 문정·장지지를 제외한 일반상업지역 비율이 1.89%로 서울시 평균 3.69%의 절반 수준이며, 건설·제조부문 산업체는 전체의 28.9%, 물류·유통부문 15.3%, 서비스부문 21.8%, 도·소매업이 31%, 기타 3% 등 부문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산업체의 90%가 10인 이하의 소

규모 사업장이다. 특히, IT 등 첨단기술 산업체는 3.3%에 불과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4. 송파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에 우리구는 구정방향을 『활력이 넘치는 경제부흥도시』로 정하고 워크포인트인 주거위주의 도시화로 지역상권침체, 특화사업 및 기반산업 발달 미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정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미래형 업무단지와 동남권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차세대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송파대로를 축으로 잠실과 문정지구를 잇는 경제벨트의 구축으로 송파를 첨단 상업·업무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개발유보지로 남아있던 문정동 280번지 일대와 문정동 350번지 일대의 개발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2004년 11월부터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가. 문정지구 개발

문정지구는 동남권유통단지와 미래형업무단지, 법조행정타운으로 구성되는데, 문정동 280번지 일대 560,694㎡를 동남권 유통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특히 가든 파이프라고 명명된 내년 4월 개장예정인 대지면적 83,598㎡인 단지내 전문상가는 3개블럭에 지하 5층, 지상 10~11층 높이로 건설되며, 총연면적은 코엑스몰의 6배 규모인 82만300㎡ 규모이다.

전문상가 중 가 블록은 영(young)관, 리빙관, 패션관, 테크노관으로 구성되며 의류신발·가전제품·조명기구·패션잡화·문구·게임 등 생활용품 매장이 들어선다. 가 블록의 가운데는 서울광장 규모의 중앙광장을 만들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열 계획이고 멀티프렉스 극장도 건설된다. 나 블록은 도심형 아파트형 공장이고, 다 블록은 공구상가 등 판매시설과 스파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단지내 전문상가 3개블럭만해도 8,283개의 점포를 가진 초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등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림 1〉 문정지구 개발 조감도

2010년에 완공예정인 동남권유통단지는 물류단지, 전문상가, 활성화 단지로 구성되는데 화물만 집배송하는 단순 물류단지가 아닌 전문상가와 전시장, 숙박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Complex시설로 조성되어 동남부 광역 수도권의 유통/문화/레저 수요를 충족하는 복합단지로 탄생된다.

나. 미래형 업무단지

우리나라의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갈 경제전략 거점지로 육성되는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는 문정동 350번지에 190,856㎡의 규모로 2007년 6월 사업시작으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데 수도권 지역규제 및 지역전통산업 부재의 불리한 상황여건 극복을 위해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게임 바이오산업 등 첨단지식산업 고부가가치기업의 본사가 유치된다. 문정미래형 업무단지는 맞은편 가락동 IT벤처타운과 상호연계해 인근 성남.분당 첨단산업단지, 용인.죽전 디지털밸리와 차별화된 서울 동남권의 R&D허브를 구축한다. 미래형업무단지가 완성되면 동남권유통단지와 함께 미래 송파지역을 대표하는 거대상권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법조행정타운은 108,221㎡규모로 법원검찰청 등 5개기관이 들어서는데 문정동 미래형단지와 어루러져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면, 문정동에 추진되는 3개단지는 생산-유통-행정-R&D-교육까지 아우르는 서울동남권의 또하나의 중심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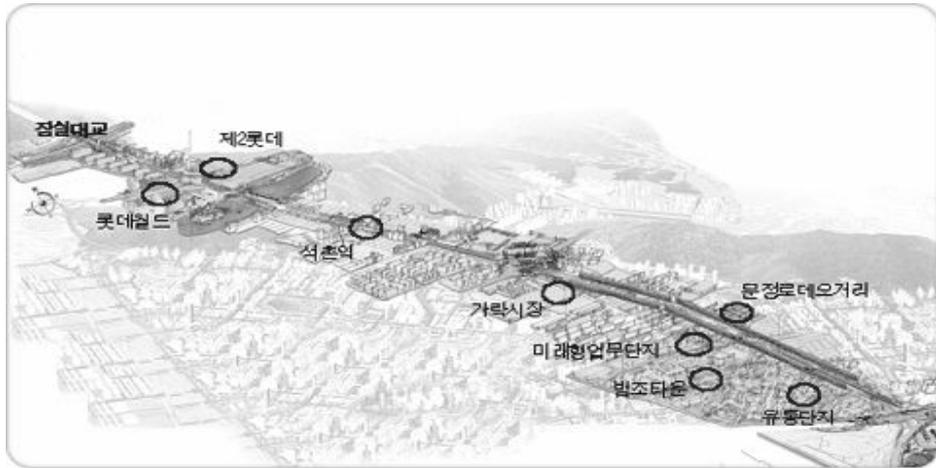


<그림 2>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특히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와 법조행정타운은 어린이,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이 도시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하는 무장애(barrier free) 1등급 도시로 조성된다. 예를 들면 문정역에서 하차한 시민은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지하 공간(Sunken)공원을 이용해 지구내 공공건축물과 시설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보행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또 도로구조가 자전거도로와 차도, 보도가 물리적인 시설로 구분되 보행안전구역도 확보된다.

다.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재 서울 동남권 송파의 중심축은 잠실아파트단지와 석촌호수 주변 롯데월드 등 상업 시설이 들어선 잠실동이다. 약 1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잠실은 강남접근성이 뛰어나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여기에 555m 높이, 112층의 잠실 제2롯데 월드가 공군이 제기한 고도제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건립되고 나면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각광받을 것이다. 현재의 축인 잠실축과 미래의 축인 문정지구를 연결하는 송파대로를 경제벨트를 구축하여 업무상업중심지로 육성한다.



<그림 3>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롯데월드 잠실역을 출발점으로부터 문정동 동남권 유흥단지까지를 종점으로 벨트화하는 송파경제벨트를 상업지구화 하여 업무용빌딩에 대기업 본사를 유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연간 매출 1,000억이상, 1,000대 기업 중 본사건물 미소유기업 192개 업체를 선정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즈송파 2010 기업유치 방문단을 구성, 기업이나 투자자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송파구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유치활동(location marketing)을 벌이고 있다.

라. 사장만들기 프로젝트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연구개발, 기술혁신, 첨단산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술 중심적 창업지향적인 것을 들 수 있는데, 우리구가 추진하는 정책수단은 동남권 유흥단지·문정동미래형업무단지 등 대규모 경제 인프라조성과 송파대로를 중심축으로 삼는 대기업본사 유치활동 외에 창업기업 지원책과 프로세스 혁신 등이 있다.

창업기업 지원책인 「사장만들기 프로젝트」는 창업을 하여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양질의 인력이 우리구에는 많음에도 국내, 외 열악한 경제여건과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창업을 주저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지원정책으로 새로운 사장을 많이 육성하고, 구민의 경제와 행복지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사장 만들기 프로젝트는 성공창업 프로젝트와 사업번창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성공창업 프로젝트는 매 분기 10명 정도 예비 사장을 모집 심의 선발하여 사업경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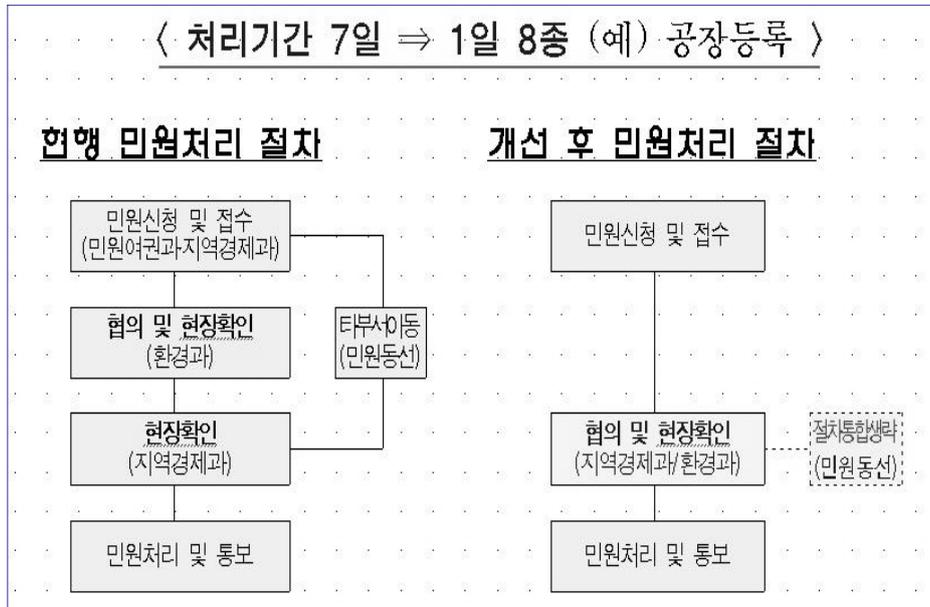
격중보유현황 희망업종 등을 고려하고 개별상담을 통해 신청대상 구민의 수요에 맞는 창업교육경영컨설팅·자금을 맞춤형 창업지원을 한다.

다음으로 사업번창 프로젝트로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와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제품특별판매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설문조사와 창업프로그램 참여자 의견을 수렴 지속적으로 창업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성공창업자의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창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한다.

마. 기업민원 1일처리제 실시

프로세스혁신 정책인 「기업민원 1일 처리제」는 기업관련 민원을 수요자인 기업인 입장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기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유기한 기업민원 17개부서 190종에 대하여 1일 처리제를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혁신정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송파이미지를 높인다.” 며 관내 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입주하는 동남권 유통단지내 입주기업들이 유통단지의 쾌적한 시설과 함께 단지 내 우리구에서 설치한 기업지원센터에서 윈스톱서비스로 종전에 1주일 걸리던 공장등록 업무처리 절차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송파구 기업이주를 만족해 할 것이다.



<그림 4> 기업민원 1일 처리제

이밖에 경제정책 위주의 지원책을 벗어나 우리송파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공인,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워터웨이사업,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개발, 한성백제문화제개최, 평생학습도시사업 등 사회복지정책, 지역문화진흥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송파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정보산업사회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수요지향형 제품생산,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변화 등 최근의 고도산업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5. 결론

국제화의 확산에 따른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고급의 다양한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지향형 제품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생산체계 구축과 하이터치(hi-touch) 상품의 생산에는 자치단체 단위로 경쟁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점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속에서 창의력이 있는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과 행정혁신을 추진한 결과 우리 송파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 부흥도시 송파 2020의 모습을 그려보면, 첫째, 문정지구에 ITBT 등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첨단산업을 리드해 나가는 초일류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구현되고, 둘째, 송파대로를 축으로 업무형 빌딩이 즐비한 비즈니스 거리에 전국의 우수기업 본사가 밀집하여 전국의 업무가 집중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리드하는 전국 제일의 경제중심도시가 탄생하고, 셋째,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인력/자금 등 경제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며, 브랜드 구축이 용이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로가 보장되며,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 활동이 수월한 기업도시가 구현된다

올해는 송파구 탄생 20주년이 되는 성년 송파의 특별한 해이다.

2000년전 송파는 백제의 도읍이었으며, 200년전 송파는 한반도 상권의 중심지였으며,

20년전 송파는 올림픽을 개최하여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2008년 지금 송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었다.

이제 2020년 송파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딩도시로 도약하고자한다.